

# 올 추석 차례상 비용 감소... 서민 물가부담은 '여전'

한국물가정보 "지난해보다 줄어" 전통시장 2.1%·대형마트 2.3% ↓ 사과·소고기값 하락세 주요 원인 고물가에 상인들 "특수 기대못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폭염으로 인해 일부 채소 가격이 상승했지만 과일과 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문가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 2500원, 대형마트 39만 416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1%, 2.3% 감소했다. 전년 대비 차례상 비용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04

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차례상 비용이 줄어든 것은 사과 가격이 지난해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 크게 상승했다가 올해 들어 작황이 개선되면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우 수급 조절에 실패해 소고기 가격이 하락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조사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 지난해 9월 11일과 비교했을 때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장을 볼 경우 사과 3개 값은 지난해 2만 원에서 올해 1만 5000원으로 25.0% 내렸고, 배 3개 가격은 1만 5000원으로 동일했다. 시루떡 3장은 1만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23.1% 하락했다. 반면 무 1개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3%, 배추 1포기는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42.9%, 대파 1단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20.0% 각각 올랐다.

대형마트의 경우 사과 3개 값은 1만 9600원에서 1만 4970원으로 23.6%, 배는 1만 7630원에서 1만 4630원으로

17.0% 각각 내렸다. 또 소고기 산적용 우둔살(600g)은 3만 8400원에서 3만 4320원으로 10.6% 하락했다. 무 1개는 2790원에서 3980원으로 42.7%, 배추 1포기는 9800원에서 1만 3800원으로 40.8%, 대파 1단은 3690원에서 4290원으로 16.3% 각각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 결과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물가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주부 송형숙(58)씨는 "차례상 비용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상차림 비용도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과일 등 일부 식품의 가격이 전보다 하락하고 있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하려면 채소부터 고기까지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 올해는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단출하게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모(59)씨도 "명절 기간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평소보다 대형마트나 시장을 자주 찾는 편이다"며 "지출 부담으로 인해 올 추석 선물도 가격대를 낮춰 준비했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 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올해 추석에도 '명절특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인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이모(70)씨는 "추석 연휴 3~4일 전부터 시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매출이 늘어나는 편이니 20~30% 이상은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경기침체가 심해 '명절특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이 오를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송승기 남광주시장 상인회장은 "일 년에 두 번뿐인 명절이라 상인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명절임에도

한해 한해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매해 예년과 같은 매출 상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전통시장 지역별 체감 BSI 수치는 광주 78.6으로 8월 체감 BSI(42.9)보다 35.7p 증가했지만, 9월 전망 BSI 수치(110.2)와 비교하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지역 9월 체감 BSI는 61.2로 전월(50.0)보다 11.2p 올랐다. 9월 전망 BSI는 102.6이었다.

한편 한국물가협회는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 용품 품목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이 28만 710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9.1% 상승했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고 수준인 17만톤 규모로 공급해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을 30만원 안팎으로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 광주은행, 지역아동센터 아동 체험 견학 성료

광주과학관 초대 문화 체험 제공

광주은행은 국립광주과학관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광주지역 아동센터 아동 40여명을 국립광주과학관으로 초대해 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광주은행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방학 중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아동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와 관련 분야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솔선수범과 투철

한 봉사정신을 가진 JB금융그룹 임직원으로 구성된 '씨앗봉사단' 2023년 창단된 JB금융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이 함께해 지역 아동들과 소통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과학관에서는 △2024 다이노 월드 공룡특별전 △3D프린터로 만든 음식 △로봇댄스공연 △드론과 인공지능 로봇 작동 체험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활동 및 관람을 진행해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체험 관람 후에는 어린이들에게 점심식사와 간식, 소정의 기념품 등을 제

공하고 지역 아동들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장은 "방학 동안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데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견학을 기획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은 국립광주과학관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광주지역 아동센터 아동 40여명을 국립광주과학관으로 초대해 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광주은행 제공

## 소진공, 전국 전통시장과 '9월 동행축제' 진행

온·오프라인 판매전·이벤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2024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소진공 6개 지역본부와 이랜드리테일의 협력을 통해 전국단위 오프라인 판매전 '소상공인 행복상회'를 개최한다.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전국 이랜드리테일 주요 매장 6곳에서 지역의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경품을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만날 수 있다.

또 전국 백년가게 1357개, 백년소공인 956개 매장에서 5000원 이상 구매한 영

수증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전국 7개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소속 슈퍼마켓 308개 점포에서 동행축제 기간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 20여 가지 제품을 공동구매해 시중 가격 대비 10%~20%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릴레이 할인전도 개최한다.

또 9월 한 달간 충전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누적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4일부터 18일까지는 전국 500여 전통시장 내 2500여개 점포가 참여하는 온라인 특별전이 진행된다. 행사기간 네이버,

배달의민족, 현대이azel, 우체국쇼핑에서 참여 전통시장·상점가 제품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이 주어지며 할인쿠폰 및 경품추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전통시장·지역상권 지원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상권 14곳에서 상권별 플리마켓, 버스킹, 먹거리행사, e스포츠행사, 경품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전국 전통시장 34곳에서 먹거리부터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즐길 거리까지 지역별 특화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9월 동행축제 관련 자세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https://k-shoppingfesta.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다운 기자

## 광주신세계, '디올 부티크' 리뉴얼 오픈

'겨울 컬렉션' 등 선배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Dior)이 광주신세계에서 여성 부티크를 지역 최초로 선보인다.

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본관 1층의 기존 디올 매장 규모를 확장해 의류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리뉴얼 오픈했다.

디올 부티크에서는 RTW(Ready-To-Wear, 기성복)를 포함해 핸드백, 슈즈, 주얼리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한번에 만날 수 있다.

부티크에서는 디올 여성 컬렉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손길로 완성된 최신 '2024 디올 겨울 컬렉션'의 의상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2024 디올 겨울 컬렉션의 의상들은 변화의 시대 그 자체였던 1960년대 후반에서 영감을 받았다.

당시에는 패션계의 도전과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창의성을 중시했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에 부합하는 의상을 만들어야 했다. 이에 디올에서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레디 투 웨어 라인인 'Miss Dior'로 혁신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레디 투 웨어 라인을 선보였다.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이에 주목하여 고안한 이번 2024 디올 겨울 컬렉션의 상은 'Miss Dior' 시그니처를 담아 자유롭게 흐르는 실루엣으로 다채로운 여성상과 그 아름다움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다운 기자

## 전남도, 배달앱 '떡깨비·땡겨요' 할인쿠폰 제공

매월 1인 2회 5천원 혜택

전남도가 공공배달앱 '떡깨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 민생경제 회복캠페인 시즌2를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공·상생배달앱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월 1인 2회 5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전남 공공·상생배달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5~2.0%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착한 배달앱이다. 가입비·광고비 또한 없어 적은 부담으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할인 혜택을 누리고 싶은 소비자는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인 공공배달앱 '떡깨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내려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신규 가맹 시 2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9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공짜배달 가맹점에 월 20만원 상당의 배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신규 가입 시 5000원 할인쿠폰 등의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

다. 상생배달앱 땡겨요는 신규 가맹 시 20만원 상당의 사장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는 신규 가입 시 첫주문 할인과 재주문 1만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9월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3000원 할인쿠폰(1인 1회),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기간 배달비 3000원 쿠폰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지현 기자

제 1135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 6 13 19 21 33	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9억5372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4868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29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